



‘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점술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애운을 점치며 운명의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MC 신동엽)

스산하게 꾸며진 방에 생년월일이 적힌 네 개의 나무패가 걸려 있다. 무당, 역술가, 타로 마스터 등의 직업을 가진 남성 4명과 여성 4명은 각자 혼자서 방에 들어가 생년월일 등 사주와 신점에 쓰이는 정보만을 보고 나무패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연애운만으로 호감 가는 상대를 고른 셈이다.

다음날 8명의 출연자는 한 숙소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각자 자기 이름만 적힌 나무패를 소지하고 있다. 전날 선택한 나무패에 적힌 나이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무당으로 소개된 여성 출연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신령님이 점지해준 사람을 만나겠다”며 “신령님이 보시기에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방송을 시작한 SBS 예능 ‘신들린 연애’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신들린 연애’는 이달 25일 방영된 2회가 20~49세 시청률(2049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 중에는 조회수 20만회를 넘긴 것도 있다.

‘신들린 연애’ 외에도 최근 무당, 신점, 귀신 등 샤머니즘을 주된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잇달아 제작되고 있다.

무속을 소재로 올해 2월 개봉한 영화 ‘파묘’는 1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가문의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무당

점술가 연애운 점치는 예능 타로카드 소재 드라마 등 붐몰 OTT·유튜브 등 매체 늘며 과장되고 자극적 콘텐츠 소비 전문가 “왜곡된 인식 우려”

이 조상의 못자리가 화근이라고 진단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작품이다.

티빙이 다음 달 11일 공개할 예정인 오리지널 시리즈 ‘샤먼: 귀신전’은 무속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이들이 찾아가는 무속인들이 행하는 의식을 담았다.

U+모바일TV의 7부작 드라마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는 타로 카드를 소재로 한다. 다음 달 15일 공개를 앞둔 이 작품은 4월 열린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무속인이 된 연예인의 근황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배우 박철은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 신내림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그는 이달 29일 MBN 예능 ‘가보자고(GO)’ 시즌2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코미디언 김주연은 9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고 털어냈다. 배우 정호근 역시 무속인이 된 후 MBC 예능 ‘라디오스타’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처럼 샤머니즘과 관련한 제작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유튜브 이용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도 샤머니즘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였지만 공공 재화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이런 소재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대체로 차분하거나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뤘다.

하지만 매체가 다양해지고 콘텐츠 시장이 과열되면서 제작자들이 점차 자극적인 소재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미디어가 무한 경쟁을 펴게 됐고, 그 결과 샤머니즘과 거리를 두려는 기존의 노력이 무너져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흥미를 중시해 샤머니즘의 자극적 측면만 부각할 경우 과확증 근거가 빈약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점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당연시하게 될 우려도 있다.

‘신들린 연애’에서 타로 마스터인 한 여성 출연자는 호감을 품은 무당 남성 출연자에게 “연애운을 봐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남성이 즉석에서 여성의 연애운을 보는데, 운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여성 출연자는 불쾌한 기분을 숨기지 않는다.

출연자가 점괘에 집착하는 장면이 몇몇 시청자는 “젊은 사람이 점괘에 얽매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안타까워하거나 “타로 그만 보고 상대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댓글로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수 평론가는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가 샤머니즘의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하고 그것이 샤머니즘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기 쉽다”며 “이 경우 샤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BTS 지민, 역시 월클!

솔로 2집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4위



그들 방탄소년단(BTS) 지민(지민)의 솔로 2집 선공개곡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Smeraldo Garden Marching Band)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4위에 올랐다.

3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 노래는 발매 첫날 662만5387회 재생돼 이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 곡은 한국(2위), 베트남(1위), 온두라스(1위) 등 13개국 ‘데일리 톱 송’에서 ‘톱 10’을 기록했다.

지민은 앞서 이 노래로 108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는 이 밖에도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 1위에도 올랐다.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는 행진하며 연주하는 마칭 밴드를 기반으로 활기찬 리듬감과 역동적인 분위기를 낸 노래다. 래퍼 로꼬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지민과 색다른 시너지를 냈다.

지민의 솔로 2집 ‘뮤즈’(MUSE)는 다음 달 19일 발매된다. /연합뉴스

AI 점목한 다큐 “불편” vs “신기” 분분

‘그녀가 죽었다’ 전 남편 살해 고유정·이은혜 등 목소리 구현 거부감 극복 과제…“AI가 미래 방송 환경 바꿔놓을 것” 전망도

“나 지금 동영상 찍으맨(찍는다). 찍으맨?(찍을까?)”

LG U+의 스튜디오 X+U와 MBC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었다’는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시작한다.

고유정은 밝은 목소리로 전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서른세 번째 생일을 맞았던 피해자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

영상 속에서 고유정은 몇 마디 하지 않는다. “00야 아빠 생일이야”, “아빠 서른세 번째 생일”, “아빠 뽀뽀(해줘)”라고 말한 뒤 본인의 얼굴을 비추며 “엄마는 엉망”이라고 말한다. 다큐멘터리는 “엄마는”이라는 말소리를 반복해서 틀더니, “AI로 고유정 보이스 재현 중”이라는 자막을 띄운다.

‘그녀가 죽었다’는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연세 보험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유괴 살인사건 등 실제 있었던 사건을 색다른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엮은 시리즈다. 내레이션 대신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된 범죄자들의 목소리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의견서를 읽어 내려간다.

고유정뿐이 아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이은혜의 목소리를 재현한 AI는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하고,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전 현주를 담은 목소리는 “나리 양 유괴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며 말문을 연다.

제작진은 “AI 기술을 통해 범죄자들의 소름 끼치는 실제 목소리를 재현했고 팩트 기반의 사실적 묘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범죄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걸 듣는 듯한 경험에 대한 시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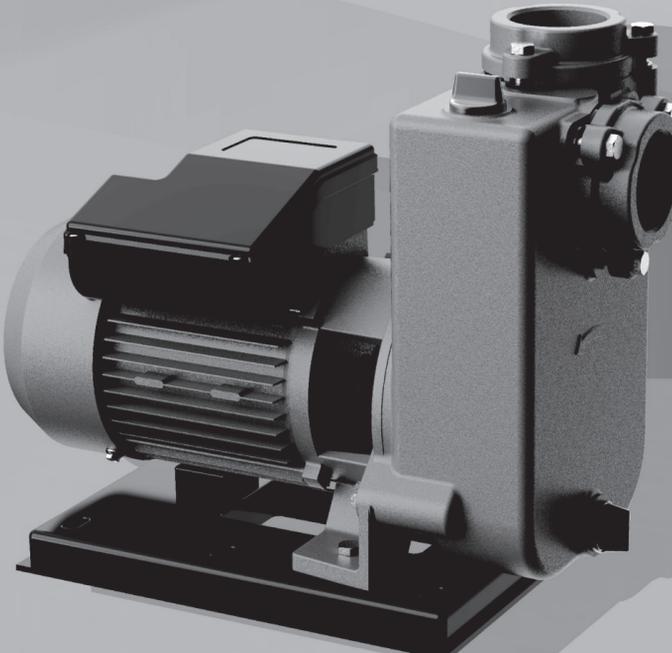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그녀가 죽었다’ 한 장면.

반응은 갈리는 편이다.

“평범한 사건 재연하고는 전달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과 함께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연출로 느껴진다”, “AI 기술로 범죄자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고 불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다.

AI의 목소리와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음악 버라이어티 예능 KBS 2TV ‘싱크로유’, 사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출연진의 성향을 파악하는 AI 시스템을 활용한 JTBC ‘My name is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EBS 다큐멘터리 ‘위대한 인도’ 등이다. AI를 전면에 내세운 이런 실험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기괴하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AI가 미래 방송 제작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